

리치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 호



(주)리치자산운용

RICH ASSET MANAGEMENT CO., LTD.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전략은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서의 참고 및 예측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투자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1. 펀드개요

펀드명

리치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 호

펀드유형

투자신탁, 사모형, 혼합자산형, 개방형, 추가형,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

국내 IPO 공모주, 장외주식, 상장주식

매입주기

IPO 공모 수요예측 참여 후 청약 시

환매방법

수익자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신탁보수

연 1.6%(운용사 : 1.275%, 판매사 : 0.2%, 신탁사 : 0.1%, 사무관리사 : 0.025%)

성과보수

연 5%(변동 시 투자규약집에 따름)

투자목적

IPO 공모주 투자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창출

운용전략

IPO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 신규상장종목의 시세차익을 통한 투자수익 확보



1. 펀드개요

공모주, 장내·외주식 등

운용수익 ↓ ↑ 투자

펀드

RICH IPO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자산
운용

업무
위탁

판매회사
(교보증권)

일반사무수탁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수익배분 ↓ ↑ 투자

투자자
(기관, 일반)

수탁회사
(NH투자증권)

(주)리치자산운용



2. 회사개요

회 사 명

(주) 리치자산운용 (RICH Asset Management Co.,Ltd)

설 립 일

2019년 5월 27일

등 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가.]에 따른 등록업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대표이사

박 인 호

회사주소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504호
(여의도동, 태양빌딩)

대표번호

TEL : 02-780-8008 / FAX : 02-780-5500



3. 운용전략

□ 공모주 투자 펀드의 장점

발행시장 직접 참여

2019년 하반기 대규모 신규상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행시장에 직접 공모가로 시장 참여

안정적인 수익구조

상장주식에 대한 면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선별적인 공모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 달성

시장 상황에 민감하지 않게 비교적 안정된 수익률 실현
1) 시장 조성기 : 200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차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상장일 증가 기준으로 매년 (+) 수익률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
2) 시장 상승기 : 시장 상승기에는 코스피 지수대비 상승폭이 확대
200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공모주 수익률은 증가 기준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

□ 공모주 시장 Review : 2003 ~ 2017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공모주 수익률	67.9	38.6	34.2	12.7	52.1	22.1	30.2	22.6	37.3	41.2	24.1	26.1	33.43	34.04
공모건수	77	60	66	42	66	98	78	28	41	73	57	69	79	6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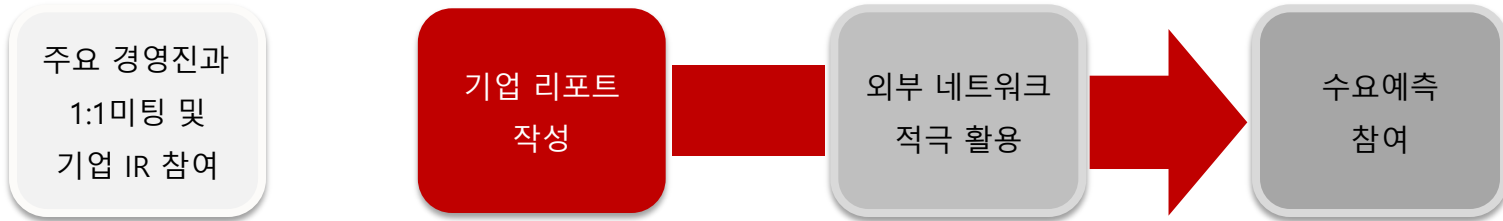
- ✓ 2015년 공모주 수익률은 24.3%로 KOSPI 수익률(2.4%)을 크게 상회하였음. 유가증권 시장에 16개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102 종목이 상장 하였으며 코스닥 종목 중 45개 종목은 SPAC 상장이었음.
- ✓ 2015년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12개사로 급증했으며 2014년 4월 기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제도를 개편한 이후 대폭 확대되어 지난 10여 년 간의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에 육박함. 기술력과 성장성은 크지만 현재 수익성이 낮아 상장이 어려웠던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 실현에도 도움을 줌.



3. 운용전략

□ (주)리치자산운용의 공모주 투자 강점

┆ 공모주 부문에서 당사만의 특화된 투자 프로세스 보유



다년간의 금융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모주 투자 수익 극대화

- ✓ 금융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평가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초과 수익 추구
- ✓ 당사는 섹터매니저가 담당 섹터 내 신규 공모주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회사 차원에서 공모참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어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주력

공모주 부문에서 당사만의 특화된 프로세스 보유

- ✓ 당사는 공모주 상장 당일 매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단, 일부 종목에 한하여 보호예수 전략 구사 계획
- ✓ 펀드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투자대상에 선별 투자



3. 운용전략

□ 공모주 시장 전망

대어급 줄줄이 출격...IPO 사상 최대 큰장 선다

김도윤 기자, 김명률 | 2018-01-04 04:15

2018년 IPO 추진 주요기업 현황



	기업명	주관사
코스피	현대오일뱅크	NH투자증권
	SK루브리컨츠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지누스	NH투자증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대우
	아시아나HDT	KB증권
	이디야커피	미래에셋대우
코스닥	현대유엔아이	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애경산업	대신증권
	카카오게임즈	한국투자증권
	티웨이항공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JTC	삼성증권
	케어랩스	한국투자증권

*자료: 각 사 및 증권업계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올해 현대오일뱅크, SK루브리컨츠 등 대기업 계열사의 잇따른 상장 추진으로 IPO(기업공개) 시장 활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호텔롯데가 상장 재도전에 나설 경우 2010년 10조907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공모를 기록하게 된다. 준대어급의 상장 이어지면 코스피 3000 시대를 앞당길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3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기업이 13~14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코스피 신규 상장 기업은 넷마블게임즈 등 8개에 그쳤다. 코스닥이 역대 최대 공모금액을 경신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스피가 IPO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올해 상장 추진이 확실적인 기업 중 SK루브리컨츠, 현대오일뱅크 등은 공모 규모가 조단위에 달하는 초대어급으로 분류된다. 또 롯데정보통신, 아시아나HDT, 애경산업, 현대유엔아이 등 대기업 계열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려있다. 교보생명 역시 상장을 추진할 경우 공모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 바다프랜드, 지누스 등 조단위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대어급의 IPO 시장 등판도 예고된 상태다.

업계에선 대기업 계열사와 알짜 중견기업의 잇따른 IPO 추진으로 올해 예상된 코스피 신규 상장 기업의 총 공모금액이 4조원을 넘어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스피 상장 추진이 확실적인 기업만 더해 도 공모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 밖 기업이 등장할 경우 지난해 코스피 공모금액 4조4478억원을 넘어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상장을 추진하다 중단한 호텔롯데가 IPO 시장에 재등판할 경우 올해 공모 시장은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이 크다. 국내 IPO 시장 역대 최대 공모규모는 2010년 10조907억원이다. 당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동시에 공모 절차를 밟으며 처음으로 연간 공모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

호텔롯데는 중국 시장 약영함이라는 악재를 극복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롯데그룹은 한 번 중단한 호텔롯데의 상장 재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언급을 꺼리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문제를 해소한 뒤에만 상장 재추진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지난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코스닥 IPO 시장의 총 공모금액은 총 3조525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제일홀딩스 등 대어급의 역할이 컸다.

올해 코스닥 IPO 시장은 지난해처럼 대어급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눈에 띄지 않지만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등 IT와 바이오, 화장품, 게임 업종이 고루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주춤한 중국 등 해외 기업의 상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카페24에 이어 테슬라오션 2호가 유력한 엔스프리엔도 벌써부터 공모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새해부터 코스닥지수가 파죽지세로 상승하며 8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욕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전기차, IoT(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스닥 IPO 시장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되는 모습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종목 중에선 O2O(Online to Offline) 회사로 처음 IPO 시장 문을 두드린 옐로모바일 손자회사인 케어랩스가 주목받고 있다.



3. 운용전략

□ 공모주 시장 전망

제목 : 4Q 상장예심청구 전년비 43% ↑, 대어급 대거 대기

가+ 가- 인세 목록보기

2019년 12월 19일 15:46 활국상 기자



4Q 상장예심청구 전년비 43% ↑, 대어급 대거 대기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내년 증시 입성을 노리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兆)단위 공모규모가 예상되는 대어급 종목들이 줄줄이 상장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4분기 들어 현재까지 신규상장이나 스펙합병 상장 등 방식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종목은 30개사(스펙 포함)로 지난해 4분기 전체 예비심사 청구종목 수(21개)를 훌쩍 웃돌았다. 4분기 상장예심 청구건수는 2015년 38개사에서 점차 줄며 2017년에는 19개사까지 주저앉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대표적인 종목이 SK바이오팜이다. SK바이오팜은 NH투자증권과 씨티그룹을 공동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 10월25일 신청한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장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사 중 처음으로 미국 FDA(식품의약품) 신약허가를 받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가치는 5조원을 웃돌고 공모규모도 조단위를 무난히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직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증시입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현대카드, CJ헬스케어, 태광실업, 호반건설, SK매직, 카카오페이지 등이 있다. 현대카드는 NH투자증권과 씨티그룹 및 한국투자증권을, CJ헬스케어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및 JP모건을, 태광실업은 한국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등을, 카카오페이지는 NH투자증권-KB증권을 각각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호반건설은 미래에셋대우-KB증권을, SK매직은 미래에셋대우-KB증권-JP모건을 이미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상장예심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던 곳들도 내년에 다시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 상장예심을 신청했다가 철회했거나 철회를 검토 중인 싸이버로지텍과 현대무빅스도 올해 실적을 확인한 후 다시 상장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와 PE(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바디프랜드도 내년 상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대어급 종목 뿐 아니라 증시 전반의 상장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 기업경기와 증시상황이 현재에 비해 호전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이다.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3개 증권사 이상의 전망치 평균)가 형성된 국내 상장사 297개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169조원으로 올해 대비 3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스피 204개사, 코스닥 93개사의 영업이익의 증가율도 각각 32.4%, 39.2%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IB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고 시장심리가 완화될수록 기업가치가 더 높게 매겨지는 만큼 호전된 시장상황은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앞당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대어급 종목의 상장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년 IPO시장의 분위기는 기대할 만할 것"이라고 했다.



3. 운용전략

□ 공모주 시장 전망

머니투데이

IPO 시장 흥행 차별화 시작된다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입력 | 2019.05.13 16:13

이달 5개 시작으로 공모 절차 돌입 기업 증가 전망... "공모일정 증복, 투자수요 분산으로 흥행성적 갈릴 것"

5월 IPO 공모 기업 일정

기업	수요예측	청약	주관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	8~9일	13~14일	NH투자증권
수젠텍	7~8일	15~16일	한국투자증권
마이크로디지털	20~21일	27~28일	하니금융투자
압타바이오	28~29일	6월 3~4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까스텔바작	27~28일	30~31일	NH투자증권

그레픽: 김지영 디자인?자

올해 지속된 IPO(기업공개) 시장 공모 흥행이 멈추고 기업 간 차별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기업이 줄줄이 등장하며 투자 수요 분산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수젠텍과 8~9일 진행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간 흥행 성적이 엇갈렸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865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 희망 공모가 밴드를 넘어선 45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반면 수젠텍은 비교적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올해 IPO 시장에서 수요예측 경쟁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이노메트리로, 128대 1이다.

올해 IPO 시장에 등장한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극심한 투자심리 위축에서 벗어나 공모 과정에서 잇따라 대박을 터뜨렸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이지케어텍이 1108대 1, 노랑풍선이 978대 1, 천보가 891대 1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한 차례 공모를 철회한 뒤 올해 제도전에 나선 드림텍과 SNK도 각각 395대 1, 317대 1의 경쟁률로 선방했다.

우선 수젠텍의 예상보다 저조한 공모 성적은 앞서 코스닥에 상장한 SNK의 부진한 추가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SNK는 중국 자본이 보유한 일본 게임 회사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도권 공모에서 비교적 흥행에 성공, 희망공모가밴드 최상단인 4만4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 지난 7일 상장 첫날 종가는 3만3650원으로 공모가대비 16.7%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젠텍은 SNK가 상장 첫날 급락하면서 공모주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영향을 바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시장 특성상 한 차례 부진한 성적을 받아들면 잠시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IPO 시장은 공모 일정이 촉촉해지며 기업 간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SNK는 스팩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공모 절차를 밟은 기업이다. 공모 시장의 유동성 및 투자 수요 집중 효과가 흥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이달에는 5개 기업이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수젠텍과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이어 까스텔바작과 압타바이오의 수요예측 일정이 하루 겹친다.

특히 오는 16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기점으로 지난 3월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에 대한 심사 승인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3기에 그친 상장예비심청구 기업수(스팩, 스펙합병 제외)는 3월부터 30개를 넘었다. 앞으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기업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모 시장 참여자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모 시장에서 흥행이 이어진 이유는 각 기업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증시 변동과 비수기(1분기) 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며 "앞으로 증시 흐름을 낙관할 수 없는데다 회계 결산을 끝낸 3월부터 예비심청구한 기업이 줄줄이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경우 투자 수요가 분산되며 차별화된 흥행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IPO 공모주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규모 변동에따른위험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자산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지급에 따른위험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수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운용성과가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평가위험	상당기간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나 시장가격이 불분명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담보가치 또는 부채 상환 조건 등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당기간 공정한 가격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운용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규모의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문사모펀드로서 활용한 전략이 일정 규모 이하에서만 유효한 전략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 규모의 급증 또는 일정 성과 이상에 도달하여 펀드 규모가 목적인 규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하지 못한 전략 수행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위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을 받고, 공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보호절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통 이상의 주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자 별로 법률상 구조행위 및 소송 등에 의존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 있어 다양한 법률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용역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주)리치자산운용의 서면 허가 없이 복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회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당사와 자료작성담당자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전적으로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 자료의 의거하여 행하여진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펀드 판매직원의 상품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실제 판매되는 상품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SSETMANAGEMENT CO., LTD.